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7;56(1):20-27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

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¹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²
경남대학교 간호학과³

김광훈¹ · 박종익^{1,2} · 이수정³ · 장광호¹

Mental Health Status of Correctional Offic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Kwang-Hoon Kim, MD¹, Jong-Ik Park, MD, PhD, LLM^{1,2},
Soo-Jung Lee, MPH, PhD³, and Kwang-Ho Jang, MD¹

¹Department of Psychiatry, Chuncheon National Hospital, Chuncheon,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³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current mental health status of correctional officers by using various assessment instru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help establish appropriate mental health-related solutions and policies for the officers.

Methods The study enrolled 2571 correctional officers from 50 correctional facilities in South Korea in 2011. They were asked to answer or rate their occupational experiences within various investigative inventories and scales including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the Job Satisfaction Scale by Davison and Cooper, the 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K-BDI), and Rosenberg's Self-Esteem Scale (RSE).

Results Based on MBI results, the burnout score of the correctional officer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occupations. Using the KOSS data, the average occupational stres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occupations. The officers' average job satisfaction score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occupations. The average depression level of the correctional officers derived from K-BDI data was 9.36. The average RSE score of correctional officers was lower than that for the other occupations.

Conclusion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mental health status of correctional officers is poorer than that for other occupations. This finding emphasizes the need for a system to regularly assess the mental health status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to find solutions that can improve their mental health statu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7;56(1):20-27

KEY WORDS Correctional institution · Correctional officers · Mental health.

Received October 18, 2016
Revised December 12, 2016
Accepted December 14, 2016

Address for correspondence
Jong-Ik Park, MD, PhD, LLM
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56 Baengnyeong-ro,
Chuncheon 24289, Korea
Tel +82-33-258-9171
Fax +82-33-254-1376
E-mail lugar@kangwon.ac.kr

서 론

많은 연구에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¹⁻³⁾ 그중 수용자들을 다루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³⁾

교정시설의 환경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아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¹⁴⁾

더구나 기존의 응보주의(retributivism) 형행 제도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정공무원들은 많

은 규율을 집행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교정교화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받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14,15)}

한국의 교정공무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많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는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Schaufeli와 Peeters¹⁶⁾의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보이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을 위축 행동, 정신신체질환, 부정적 태도, 탈진감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는 Yoon¹⁷⁾이 교정공무원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직 관련 스트레스와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교정공무원의 신체적 질병과 사망, 탈진감 등이 높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다고 했다.

또한 Lee¹⁸⁾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Sin¹⁹⁾의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폭력피해 경험이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Goldberg 등²⁰⁾의 연구에서도 교정공무원의 우울, 불안, 불면 등이 타 직업군에 비하여 더 높다고 하였다.

결국 직무 스트레스는 교정공무원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단순히 교정공무원의 업무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가혹 행위나 관리 저하로 연결되어 교정행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신건강의 현황 및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고 향후 적절한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방 법

대상군 및 조사일정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전체 50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대상군은 수집기관에 있는 교정공무원들에서 임의 추출하였고 불성실 응답이나 일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제외된 사람이 있었다.

설문 조사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 시행 이전에 총 2회에 걸쳐 교정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점검하였고, 응답자들의 주요 건의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병원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2013-09-005), 법무부 용역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조사항목

사회인구학적 구성

성별, 나이, 결혼 상태, 학력, 종교, 근무기간, 직급, 직류 등을 조사하였다.

탈진감

탈진감 측정도구는 Maslach와 Jackson²¹⁾이 개발한 탈진감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이하 MBI)를 Kim²²⁾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감소된 개인적 성취감(8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탈진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89였고, 이를 세분화한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및 감소된 개인적 성취감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0.91, 0.62, 0.79였다.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hang 등²³⁾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이하 KOSS)의 단축형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리환경(3문항), 직무요구(4문항), 직무자율(4문항), 관계갈등(4문항), 조직체계(3문항), 보상부적절(4문항), 조직문화(2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원척도의 단축형에는 직무불안정 영역이 속해 있으나, 교정직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물리환경 영역으로 대체한 것을 사용하였다.²⁴⁾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1이었고, 하위 요인은 물리환경 0.75, 직무요구 0.73, 직무자율 0.48, 관계갈등 0.74, 조직체계 0.70, 보상부적절 0.82, 조직문화 0.64였다. 이 중 문항 간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직무자율 영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직무만족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Cooper와 Davidson²⁵⁾의 영역별 업무만족도 척도(The Job Satisfaction Scale by Davison and Cooper)를 Kim²⁶⁾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직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며, 직무 자체와 감독자, 동료, 임금, 승진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75였다.

우 울

우울 측정도구는 Beck²⁷⁾이 개발하고 Lee와 Song²⁸⁾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Beck²⁷⁾은 0~9점을 비우울, 10~15점을 경한 우울증, 16~23

점을 중등도 우울증, 24점 이상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Shin 등²⁹⁾의 연구를 참고하여 16점과 22점의 절단점을 설정하였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0점에서 3점까지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5였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³⁰⁾가 개발한 자아존중감(Rosenberg's Self-Esteem, 이하 RSE) 척도를 Jon³¹⁾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문항 형식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84였다.

정신건강 문제 및 서비스 이용 실태

근무여건 및 처우, 수용자와의 문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방법

교정공무원에게 배포한 설문지의 경우 결측치가 적어 이를 모두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기술통계, 집단 간 t 검정 및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다.

결 과

사회인구학적 분포

전국에 있는 50개 교정시설에서 수집된 총 257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자는 2326명(90.5%), 여자는 216명(8.4%)이었으며, 29명(1.1%)의 자료는 성별에 무응답을 하여 성별에 따른 분석에는 제외되었지만, 전체 자료에는 포함되었다(표 1).

본 연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39.35세였고, 연령별 분포는 30~40대가 약 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참여자 중 72.8%는 기혼이었고, 가족이 있는 대상자 중 75.0%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약 76%였다. 직급은 교위가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사, 교도, 교감, 교정관, 서기관, 일반고위공무원 순이었다. 직류는 교정직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들이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36.69개월이었고, 최대는 423개월이었다.

탈진감

표 2에 탈진감 척도와 하위 요인들의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탈진감 평균은 66.24(SD 10.95)였고, 남자 교정공무원의 탈진감 평균은 66.32(SD 11.00), 여자는 65.38(SD 10.09)이었다.

하위 요인인 정서적 고갈 평균은 28.46(SD 6.52), 비인간화의 평균은 13.86(SD 2.88), 감소된 개인적 성취감 평균은 23.85(SD 4.10)였다. 교정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탈진감을 문항별로 분석해 봤을 때, 높은 평균값을 지닌 문항은 주로 정서적 고갈 요인에 속한 문항이었다.

직무 스트레스

표 2에 직무 스트레스 척도와 하위 요인들의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평가도구로 측정한 교정공무원의 전체 직무 스트레스 평균은 59.64(SD 13.34)였다. 하위 요인을 각각 살펴보면, 물리환경의 평균은 58.25(SD 20.78), 직무요구의 평균은 60.19(SD 18.23), 관계갈등의 평균은 66.10(SD 17.46), 조직체계의 평균은 58.92(SD 18.25), 보상부적절의 평균은 53.94(SD 17.85), 조직문화의 평균은 57.98(SD 20.53)이었다.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교정공무원 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역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t=4.588$, $p=0.000$). 하위 요인에서는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

직무만족도

표 2에는 직무만족도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평균은 18.05(SD 4.68)였다. 성별에 따른 t 검정 결과,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2.732$, $p<0.01$).

우 울

표 2에는 교정공무원의 우울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우울 평균은 9.36(SD 9.75)이었다. 성별에 따른 t 검정 결과,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무원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80$, $p<0.01$).

우울 척도의 분할점으로 Shin 등²⁹⁾이 제시한 16점과 22점의 절단점을 사용한 결과, 16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503명(19.7%)이 기준점 이상이었고, 22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287명(11.2%)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officers

	Male	Female	Total
	n (%)	n (%)	n (%)
Age			
20–29	142 (6.1)	35 (16.2)	178 (6.9)
30–39	1032 (44.4)	96 (44.4)	1128 (43.9)
40–49	828 (35.6)	60 (27.8)	888 (34.5)
50–59	240 (10.3)	18 (8.3)	258 (10.0)
No answer	84 (3.6)	7 (3.2)	119 (4.6)
Marital status			
Single	576 (24.8)	59 (27.3)	637 (24.8)
Married	1725 (74.2)	144 (66.7)	1871 (72.8)
Separated, divorced, widowed	13 (0.6)	8 (3.7)	21 (0.8)
No answer	12 (0.5)	5 (2.3)	42 (1.6)
Living together			
Yes	1773 (76.2)	151 (69.9)	1927 (75.0)
No	475 (20.4)	58 (26.9)	534 (20.8)
No answer	78 (3.4)	7 (3.2)	110 (4.3)
Education periods (years)			
0–6	8 (0.3)	0 (0.0)	8 (0.3)
7–9	10 (0.4)	0 (0.0)	10 (0.4)
10–12	512 (22.0)	27 (12.5)	541 (21.0)
13–16	1726 (74.2)	180 (83.3)	1909 (74.3)
≥17	46 (2.0)	7 (3.2)	53 (2.1)
No answer	24 (1.0)	2 (0.9)	50 (1.9)
Religion			
Yes	1135 (48.8)	137 (63.4)	1279 (49.7)
No	1137 (48.9)	75 (34.7)	1220 (47.5)
No answer	54 (2.3)	4 (1.9)	72 (2.8)
Position			
Corrections officer	534 (23.0)	43 (19.9)	579 (22.5)
Senior corrections officer	780 (33.5)	79 (36.6)	864 (33.6)
Inspector	849 (36.5)	71 (32.9)	926 (36.0)
Chief inspector	76 (3.3)	11 (5.1)	87 (3.4)
Superintendent	7 (0.3)	0 (0.0)	7 (0.3)
Chief superintendent	4 (0.2)	0 (0.0)	4 (0.2)
Superintendent general	0 (0.0)	1 (0.5)	2 (0.1)
No answer	76 (3.3)	11 (5.1)	102 (4.0)
Type of employment			
Corrections officer	2160 (92.9)	183 (84.7)	2357 (91.7)
Correctional education officer	37 (1.6)	2 (0.9)	39 (1.5)
Classification officer	37 (1.6)	2 (0.9)	39 (1.5)
The others	52 (2.2)	22 (10.2)	75 (2.9)
No answer	40 (1.7)	7 (3.2)	61 (2.4)
Length of employment (years)			
<1	101 (4.3)	6 (2.8)	107 (4.2)
1–5	592 (25.5)	71 (32.9)	666 (25.9)
5–10	374 (16.1)	33 (15.3)	408 (15.9)
10–15	391 (16.8)	32 (14.8)	423 (16.5)
15–20	278 (12.0)	22 (10.2)	301 (11.7)
≥20	501 (21.5)	48 (22.2)	552 (21.5)
No answer	89 (3.8)	4 (1.9)	114 (4.4)
Total	2326 (90.5)	216 (8.4)	2571 (100.0)

자아존중감

표 2에 교정공무원의 자아존중감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교정공무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28.50(SD 3.88)이었고, 여자에 비해 남자 교정공무원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235$, $p<0.05$).

정신건강 문제 및 서비스 이용 실태

처우 및 근무여건

교정 현실에서 교정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62.6%

는 경찰 등 유사직종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72.4%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 48.9%는 상사나 동료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함을 느낀다, 69.9%는 사동 근무(working in prison)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42.0%는 수용자와 대면하는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47.1%는 수용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의 위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48.3%는 수용자로부터 협박이나 폭언,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11.9%는 피해의 빈도나 강도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의 49.6%는 수용자와 마주침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SDs) of psychological factors in male and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Male	Female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Burnout	66.32 (11.00)	65.38 (10.09)	66.24 (10.95)
Emotional exhaustion	28.51 (6.54)	28.07 (5.98)	28.46 (6.52)
Depersonalization	13.90 (2.89)	13.34 (2.58)	13.86 (2.88)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23.83 (4.11)	24.04 (3.84)	23.85 (4.10)
Occupational stress	59.92 (13.50)	56.17 (10.84)	59.64 (13.34)
Physical environment	58.79 (20.93)	52.45 (17.96)	58.25 (20.78)
Job demand	60.66 (18.27)	54.40 (16.81)	60.19 (18.23)
Interpersonal conflicts	66.54 (17.65)	61.41 (14.44)	66.10 (17.46)
Structure of organization	59.02 (18.41)	57.37 (16.14)	58.92 (18.25)
Compensation inadequacy	53.90 (17.94)	54.15 (16.78)	53.94 (17.85)
Organization culture	58.22 (20.62)	54.81 (18.66)	57.98 (20.53)
Job satisfaction	18.00 (4.76)	18.75 (3.71)	18.05 (4.68)
Depression	9.50 (9.81)	7.64 (8.45)	9.36 (9.75)
Self-esteem	28.46 (3.87)	29.08 (3.79)	28.50 (3.88)

Table 3. Correctional officers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s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n (%)]

	Strongly agree	Agree	Un-decided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Median wage of my profession is not as high as that of other professionals such as police.	469 (18.2)	1141 (44.4)	681 (26.5)	229 (8.9)	18 (0.7)
(B) Because of extensive working hours and on-calls I tend to feel exhausted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740 (28.8)	1121 (43.6)	506 (19.7)	152 (5.9)	14 (0.5)
(C) It is challenging to build relationship with my colleagues due to difficulty in communication.	237 (9.2)	1019 (39.6)	835 (32.5)	407 (15.8)	36 (1.4)
(D) I do feel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accidents may happen while I am on duty.	620 (24.1)	1178 (45.8)	518 (20.1)	199 (7.7)	17 (0.7)
(E) I feel threatened while I am counseling prisoners.	221 (8.6)	859 (33.4)	853 (33.2)	528 (20.5)	68 (2.6)
(F) Some of prisoners have threatened me that they may sue or report me to the higher authority.	322 (12.5)	889 (34.6)	596 (23.2)	470 (18.3)	260 (10.1)
(G) Some of prisoners have threatened, cursed or assaulted me.	306 (11.9)	936 (36.4)	595 (23.1)	465 (18.1)	234 (9.1)
(H) I was investigated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due to accusation or petition.	163 (6.3)	371 (14.4)	453 (17.6)	649 (25.2)	898 (34.9)
(I) I prefer to work for a department where I do not have direct contact with prisoners.	512 (19.9)	762 (29.6)	802 (31.2)	359 (14.0)	96 (3.7)

정신적 고충 및 수용자와의 관계

교정공무원이 특히 어떤 요인으로부터 정신적인 고충을 많이 받는지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수용자와의 관계'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과다한 업무량, 열악한 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충의 1순위에서도 드러났듯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수용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의 지시에 잘 따르는지를 조사한 결과, 43%는 수용자들이 지시에 잘 따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41.4%는 잘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4.4%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6개월간 수용자에게 협박이나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차례 있다가 27.8%, 여러 차례 있다가 8.9%였다. 아울러 최근 6개월간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두 차례 있다가 33.8%, 여러 차례 있다가 10.1%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 문제 및 서비스 이용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주로 동료직원과 상담하거나 상급자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있었으며, 전체 교정공무원의 24.2%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병의원이나 상담소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39.8%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고 찰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50개의 교정시설 중 공주치료감호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257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교정공무원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진 타 직종에 비하여도 탈진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MBI로 측정된 교정공무원의 탈진

감(burnout) 평균은 66.24로 교사(56.89 ± 11.33)⁴⁾나 경찰공무원(58.38 ± 9.07)⁵⁾보다 높았으며, KOSS로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occupational stress) 평균 역시 59.64로 소방공무원(44.68 ± 12.68),⁶⁾ 사회복지직 공무원(51.57 ± 10.65),⁷⁾ 생산직 근로자(45.09 ± 7.17)⁸⁾들보다 높았다. 반면, The Job Satisfaction Scale by Davison and Cooper로 측정한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평균은 18.05로 경찰공무원(19.75 ± 4.36)⁹⁾보다 낮았으며, RSE로 측정한 자아존중감(self-esteem) 평균은 28.50으로 간호사(28.9 ± 3.90)¹⁰⁾보다 낮아서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심각함을 시사한다.

처우 및 근무여건과 교정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신적인 고충의 1순위가 수용인과의 관계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정공무원의 24.2%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병의원 및 상담소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신건강 역시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는 수용인의 그것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총체적인 안목에서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당수의 교정공무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채로 교정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는 단순한 정신건강상담은 물론 전문적인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전체 교정공무원들 중 상당수(39.8%)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정신과적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전체 교정공무원들 중 24.2%만이 병의원이나 상담소를 방문해, 정신과적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교정공무원들 중 대부분이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못했다. 연구설계상 직접 면담을 하지 못한 관계로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 조사는 불가능했지만 적지 않은 잠재적 위험군이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실제로 정신과적인 특성을 감안한 진료나 관리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에서 기질적인 것 못지않게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시설의 특수성이 정신질환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³²⁾ 아울러 수용자로부터 받는 폭언 및 폭행, 상사 및 동료

와의 관계,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보수 등과 같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가세하는 경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정공무원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진행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인력이 직접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문제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는 대부분 정신보건센터를 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연계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기관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의뢰 및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체계 내의 인적자원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점점 전문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교정시설에서도 이러한 정신보건전문인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정공무원을 위한 정신보건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12년 12월 18일 군산교도소에서 첫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한 이래로 진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총 4개의 지방교정청 산하 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교정본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일환으로 정실질환 수용자에 대한 재활 및 치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교정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마저도 현재 존재하는 교도소 내 정신보건센터의 수가 4곳에 불과해 전국의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확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정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정신과적 상담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수용자들과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도 교정공무원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내부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예방, 조기개입, 선별 등에 매우 유용하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외에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힐링캠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정시설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황 및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한 만큼 교정공무원에 의해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교정공무원은 남자 교정공무원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여성 교정공무원들을 다수 포함시킨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최근 교정시설에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징, 정신건강 실태,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과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정기적인 정신건강 평가와 개선을 위한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중심 단어 : 교정시설 · 교정공무원 · 정신건강.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Stansfeld S, Candy B.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a meta-analytic review.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06; 32:443-462.
- 2) Babazono A, Mino Y, Nagano J, Tsuda T, Araki T. A prospective study on the influences of workplace stress on mental health. *J Occup Health* 2005;47:490-495.
- 3) Kitaoka-Higashiguchi K, Nakagawa H, Morikawa Y, Ishizaki M, Miura K, Naruse Y,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job demand, control and depression in workplaces in Japan. *J Occup Health* 2002;44: 427-428.
- 4) Kim MH. Teacher stress and burnout. Seoul: Yonsei University;1991
- 5) Park JH. Comparison of exhaustion level due to job stress between police officer and civil officer [dissertation]. Suwon: Kyunggi University;2005.
- 6) Jo S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alcohol-use disorders among firemen [dissertation]. Suwon: Ajou University;2010.
- 7) Park MW, Cho KY, Baek C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on depressive symptom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J Korean Soc Welf Adm* 2013;15:1-29.
- 8) Lim HH.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male industry workers [dissertation]. Suwon: Ajou University;2007.

- 9) Sin SW. Effect of psychological burnout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police officers. *J Korea Contents Assoc* 2010; 10:337-343.
- 10) Lee HS. Effect of the occupational stress and self esteem on mental health among nurses. *J Korea Contents Assoc* 2013;3:251-259.
- 11) Finney C, Stergiopoulos E, Hensel J, Bonato S, Dewa CS. Organizational stressors associated with job stress and burnout in correctional officers: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2013;13:82.
- 12) Bourbonnais R, Jauvin N, Dussault J, Vézina M.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interpersonal violence at work and mental health among correctional officers. *Int J Law Psychiatry* 2007;30:355-368.
- 13) Ghaddar A, Mateo I, Sanchez P. Occupational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correctional officers: a cross-sectional study. *J Occup Health* 2008;50:92-98.
- 14) Lee SJ, Yoon OK. Burnout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inmates' violence against correctional officers. *Correct Rev* 2004; 25:7-34.
- 15) Lee SJ, Koo HA, Hong YO. Victimization of inmates violence against correctional officers as a cause of their stress-related mental health problems. *Korean J Ind Organ Psychol* 2005;18:317-335.
- 16) Schaufeli WB, Peeters MCW. Job Stress and burnout among correctional officers: a literature review. *Int J Stress Manag* 2000;7:19-48.
- 17) Yoon OK. Th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its causes and reduction strategies. *Korean Assoc Public Saf Crim Justice Rev* 2006;25:81-108.
- 18) Lee MS. The effects of correctional officers' victimization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Korean Criminol Rev* 2006;67:99-138.
- 19) Sin SW. The comparison of the violence experience, psychological burnout, occupational satisfaction between police and correctional officers. *J Korean Pub Police Secur Stud* 2009;6:105-124.
- 20) Goldberg P, David S, Landre MF, Goldberg M, Dassa S, Fuhrer R. Work conditions and mental health among prison staff in France.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6;22:45-54.
- 21) Maslach C, Jackson S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 Organ Behav* 1981;2:99-113.
- 22) Kim JH.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job stresses and psychosomatic symptoms, burnout. *Chuncheon Teachers College* 1993;33: 3-61.
- 23) Chang SJ, Koh SB, Kang DM, Kim SA, Kang MG, Lee CG, et al.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5;17:297-317.
- 24) Jung DH. Study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worker's job stress and job burnout impacting on job attitudes: focused on correctional officers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2010.
- 25) Cooper C, Davidson M. The high cost of stress on women managers. *Organ Dyn* 1982;10:44-53.
- 26) Kim JI. Effects of negative affectivity and social support on job stress and its outcomes. Seoul: Chung-Ang University;1997.
- 27) Beck AT.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1967.
- 28) Lee YH, Song JY.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 Clin Psychol* 1991;10:90-113.
- 29) Shin MS, Kim ZS, Park KB. The cut-off score for the 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Korean J Clin Psychol* 1993;12:71-81.
- 3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1965.
- 31)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 11:109-129.
- 32) Park JI, Kim YJ, Lee SJ. Mental health status of prison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454-462.